



출장보고서

※출장자: 한진희 한국개발원 연구위원

※회의명: PECC PEO Structure Speccialists Meeting

- PECC 태평양경제전망구조회의

※회의일자: 2006년 9월 23~24일(토, 일)

※회의장소: 일본 오사카

1. 출장 목적

- o PEO Structure 전문가 회의 참석.
 - Korea에 대하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발표.
 - * 논문제목: "Does Population Aging Slow Down Economic Growth?"
 - 호주 및 뉴질랜드 논문에 대한 comment.

2. 회의 장소 및 일시

- o September 23-24, 2006, Japan Committee for PEO, Osaka, Japan

3. 출장자

- o 한진희, 한국개발연구원, 연구위원

4. 회의개요

- o 본 회의는 Aging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s라는 주제로 PEO Structure Meeting에서 열린 2차 회의로서, 각국의 country study의 중간 발표 성격을 가진 회의였음.
 - 1차 회의는 지난 3월 열렸으며, 이 회의에는 KIEP의 남상열 박사가 참석.
- o 주요 향후 일정
 - Executive summary submission: end of Nov. 2006
 - Full Paper submission: end of Dec. 2006
 - Publication: Executive summary (April 2007), Proceedings (Sep. 2007), Book (Dec. 2007)
 - * 본 주제에 관한 최종 회의는 2007년 9월경 열릴 예정.
- o 각국의 Country study는 PEO Structure Meeting의 coordinator가 작성한 guideline에 따라 수행되고 있었음.
 - Guideline
 1. Population Dynamics
 2. Its Economic Impacts on Growth Potentials

a. Labor Supply, b. Saving , c. Productivity

3. Policy Implications

5. 주요 논의내용

- o 한국은 "Does Population Aging Slow Down Economic Growth?"라는 주제로 발표.
 - 국별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동학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빠른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에 있으며, 고성장 국가가 출산율 하락, 인구증가율 하락, 생산가능연령인구비율의 변화 등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임을 보여줌.
 - 또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국가가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견고하게 뒷받침되지 못하며, 오히려 인구구조 변화가 빠른 국가, 즉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국가가 일인당 소득증가율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.
 - 결론적으로 고령화가 향후 한국경제의 일인당 소득증가율을 현저히 둔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주장.
- o 일본은 고령화가 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주장.
 - 일본의 경우 70년대 이후 기업저축은 증가하였으나 가계저축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민간저축은 flat 한 패턴.
 - 일본의 경우 인구구조와 경상수지간 체계적 관계는 발견되지 않음을 주장.
 - 정책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이 중요함을 주장.
- o USC의 Nugent 교수는 age structure 와 TFP growth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djustment mechanism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.
- o USC의 Dietrich 교수는 immigration, international capital flow 등 고령화와 관련된 open economy issue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 피력.
- o 홍콩은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고령화가 일인당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,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.
 - 또한 고령화와 함께 홍콩의 이민정책이 high skilled를 중심으로 최근 적극적으로 전환되었으며, education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.

- o 대만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 속도 및 고령화의 주요 원인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였으며, 대만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복지 확대 등 대응책을 어떻게 경제의 활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인가가 issue임을 지적.
- o 인도네시아는 인구동학의 초기 국면에 있으며, 현재 평균수명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65세 이상 기준의 고령화 정의보다는 60세 기준의 고령화 정의가 적절함을 주장.
- o Singapore는 여성, 노인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낮고, 이 부분의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.
- o 미국은 고령화가 일인당 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흔히 비관적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, 실제 다양한 adjustment mechanism이 작동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.
 - BEA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향후 2010-2030년 기간 중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실제 80년대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세로 반전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.
- o 호주는 고령화가 호주경제의 성장잠재력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였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.
- o 뉴질랜드의 고령화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늦게 진전되고 있으며,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과연 얼마나 위협할 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보다는 특히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,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.
- o USC 의 Jeffrey Nugent 교수는 고령화가 경제구조(economic structure)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특별강연에서 인구구조가 산업구조에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음.

특히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노인 인구비율의 상승은 그 산업의 수요증가요인으로 작용하며, 유년인구비율의 상승은 농림어업의 비율에 정의 효과를 가짐을 보임.
- o 전반적으로 볼 때 인구구조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

수는 있으나,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, 은퇴연령의 상승, 저축 행위의 변화, 생산성 향상 등 소위 adjustment mechanism 을 고려할 때 그 실제 효과는 흔히 논의되는 것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임.

6. 주요 참가자 명단

- o Akira Kohsaka, Osaka University, Japan
- o Jeffrey Nugent, USC, USA
- o Tony Makin, Griffith University, Australia
- o Ka Chun Hou, Financial Secretary's Office, HK, China
- o Miranda Goeltom, Senior Deputy Governor Bank of Indonesia, Indonesia
- o Kazuo Owawa, Osaka University, Japan
- o Takashi Oshio, Kobe University
- o Johannah Branson,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, NZ
- o Khee-Giap Tan,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, Singapore
- o Miao Chen,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, Chinese Taipei
- o Kimball Dietrich, USC, USA (observer)
- o Shinichi Ichimura, Kyoto University (Japan Committee for PEO)

※ 첨부자료: 한국측 발표자료 (한진희 박사)